

제 108회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3년 7월 19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 단기 4293년 7월 19일 하오 12시 1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경인
 5. 출석의원
재적 16명 중 15명 출석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장건식 외 재무, 건설 과장
 7. 의사 일정
 - ◆보고사항
 - 제 107회 회의록 통과
 - ◆부의사항
 - 상대 이전 반대관계 정중섭 의원 발언 내용 조사 위원회 조사결과 처리의 건
 8. 토의 사항
 - 개회식 거행 (식순 생략)
 - ◇김 경 인 의장
 - 개회사 (생략)
- ※제 107회 회의록 통과

◇주 도 식 서기

- 낭독하다. 이의 없음으로 통과하다.

※상대이전 반대 관계 정중섭 의원 발언 내용 조사 위원회 조사결과 처리의 건

◇김 상 태 의원

- 거반 좌담회에서 김성균 의원 말씀 들었다. 이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피차간 입장이 곤란하니 선거 후까지 미루자는 김상옥씨의 말이 있었다. 개인 당락에 관계되는 문제를 공공연하게 개최함은 불손한 회의다. 김경인씨에게 말씀 드린다. 4.19혁명으로 인하여 민주당에게 의장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므로 민주당을 탈당하였으니 의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 김상태 의원의 발언 중에서 불손한 회의라는 발언이 있으니 취소하라.

◇김 상 태 의원

- 본 문제를 좌담회에서 결말을 짓게 된 것을 본 회의를 소집하니 그렇다.

◇김 경 인 의장 신상발언

-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을 탈당했으니 의장직을 내어 놓으라는 말씀은 김상태 의원의 양식에 비추워 유감으로 생각한다. 본인도 부정과 불의와 싸웠는데 민주당을 일시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신공격을 함은 대단 유감이니 취소하기 바라며 본 회의의 소집도 다수의 원의 요청에 의하여 자치법에 의거 소집한 것이니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말도 있을 수 없다.

- 김상태 의원 퇴장하다. (상오 11시)

- 조양순 의원 퇴장하다. (상오 11시. 재석 의원 8명)

◇김 경 인 의장

- 성원 미달로써 정회를 선언하다. (상오 11시)

- 김남진 의원 참석

(상오 11시 10분. 재석 9명)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상오 11시 13분)

◇김 성 균 의원

- 좌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한바 있었다. 김상태 의원은 29일 선거 이 후로 미루자고 하나 이는 부당하니 시민에게 당시의회의 입장을 해명하여야 한다.

- 천철수 의원 참석

(상오 11시 20분)

◇정 응 표 의원

- 불손한 의회의 소집이라도 하나 자기네들이 정견 발표시 정견만 발표하였으면 하였을 것을 시의원들이 광주로 상대이전 공작을 하였다고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에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정 의원의 개인적인 관계되는 말이 아니며 또 이를 29일 이후로 미루자고 하나 우리들 입장을 해명키 위해 소집한 것이 불손한 동기가 아니다.

- 박두순 의원 참석

(상오 11시 23분)

◇김 삼 성 의원

- 상대문제에 있어 거시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태 의원이 불손한 회의라고 하나 우리들의 입장을 해명하고자 소집하였다. 정중섭 의원 상대로 본 의회의 결의로써 명예 훼손을 고발하고 신분지상에 해명서를 발표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과 삼청이 있었다.

◇김 창 희 의원

- 본 건에 대하여 김상태 의원 말과 같이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불손한 회의라는 발언을 먼저 구명하여야 한다. 목적이 시의회의 입장을 해명하고자 소집한 것인데 시의회를 모욕하였으니 김상태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면서 고발조치도 변호사로 하여금 고발케 할 것을 바란다.

◇이 정 권 의원

- 신문지상에 해명서를 발표하고 고발하자는 것은 저쪽에서 반격이 오지 않을까 한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처리문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고소는 어색하지 않으런지 참고로 말씀 드린다.

◇김 삼 성 의원

- 정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상위되니 뒷일은 염려될 것이 없다.

◇김 성 균 의원

- 우선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저쪽의 태도를 봐서 고소는 다음에 함이 여하한지

◇김 삼 성 의원

- 김성균 의원의 말씀과 같이 해명서는 즉시발표하고 저쪽의 반발작용에 의해 고발 법적수속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변경 동의하다. 4청이 있었다.

◇김 창 희 의원

- 동의 일부 취소. 김상대 의원 징계 위원회 동의는 사양하련다.
- 김삼성 의원 동의를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문안작성은 김성균 의원에게 일임하고 김삼성 의원 동의 통과를 선언하다.
- 김일섭 의원과 김상대 의원 참석 (상오 11시 50분)

◇박 두 순 의원 긴급동의

- 온금동, 서산동 일대 수도문제가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수도 사정 원활하게 되어 대단반가운 일이다. 그에 수반해서 서남 수산회사와 수도 계약 경신시 본 회의의 의결를 얻도록 된 것을 그 당시 3인 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다.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장

- 본 건 이의 없음으로 3인 위원에게 일임할 것을 선언하다.

- 폐회를 선언하다.

(하오 12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 함

단기 4293년 7월 20일

시의원 김상태

작성자 서기 배문봉